

우리는 왜 사는가?

사학과, 201421656, 이원혁

들어가며

대한민국은 놀기 참 좋은 나라이다. 서울에 가보면 24시간동안 불빛이 꺼지지 않는 유흥업소들이 즐비하고 밤늦게 까지 문을 닫지 않는 상점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은 저녁 7~8시면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고 업주들이 집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들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벌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형적인 한국 회사원만 봐도 그렇다. 캐나다 공무원이나 회사원의 경우 주말은 휴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직업에 관련된 일을 일절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회사원들은 주말에도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고객이나 상사의 전화를 상대해야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에 출근해 시간외 노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 태반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일을 하는 평균시간이 44.6시간으로 가장 많은 터키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¹⁾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까? 인간에게 있어서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을 하는 것일까? 아니라면, 일을 하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우리는 어쩌면 20세기 저명한 경제학자 막스 베버(Max Weber)의 책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베버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는 바빌로니아, 중국, 인도 등 고대, 중세 사회에서도 존재하였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금전욕”이라는 욕구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前)자본주의와는 달리 근대자본주의를 잉태할 수 있었던 원천은 16세기 새롭게 등장한 어떠한 ‘정신’이라고 베버는 말한다. 베버는 이 정신을 16세기에 일어난 반(反)가톨릭운동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의 신자들이 공유했던 직업윤리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베버는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에서 활약했던 프로테스탄트 칼뱅주의에서 자본주의 정신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칼뱅주의는 개인이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여부는 신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예정설’을 내세웠다. 칼뱅주의에 따르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개인이 알 수 없으며 알려고 하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칼뱅 교도들은 자신이 구원을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노동이라는 선택을 했다. 그들에게는 “노동을 의무로 여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태도가 이들에게서는 빈번하게, 수입과 그 크기를 반드시 계산하는 엄격한 경제성, 그리고 작업 능력을 상당히 제고하는 냉철한 자기통제 및 절제와 결합되어 나타난다.”²⁾ 칼뱅주의 신자들의 삶에서 쾌락과 향락을 절제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행위는 자신이 구원이 예정되어있다는 증표였으며, 노동은 그들의 목적인 신의 부르심, 즉,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소명”이었다. 베버는 바로 이 금욕주의와 “노동을 의무로 여기는” 윤리의식이 근대자본주의를 탄생시킨 바

1) 2011년 OECD 통계자료 참조.

2)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덕영 역, 도서출판 길, 2010, 87쪽.

로 그 어떠한 정신의 뿌리라고 생각하였다. 이 정신은 종교적 굴레를 벗어나 사회전체로 세속화되었으며 베버는 이 정신이 과거 쾌락중심적인 전통주의를 철폐하고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근대 자본주의사회를 탄생시켰다고 말한다.

타락해버린 자본주의정신

세속적 금욕주의와 직업소명의식, 이들은 베버의 의견에 따르면, 물론 전통주의에서 17세기 근대자본주의로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 이었지만, 자본주의정신이 세속화되고 자본주의가 점점 성장하면서 자본주의정신은 썩어간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정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20세기 자본주의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비판한다.

“아무튼 승리를 거둔 자본주의는 기계적 토대위에 존립하게 된 이래로 금욕주의 정신이라는 버팀목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정신을 웃으면서 상속한 계몽주의의 장밋빛 분위기도 마침내 빛이 바래가고 있는 듯하며, 또한 ‘직업의무’ 사상도 옛 종교적 신앙 내용의 명령이 되어 우리 삶을 배회하고 있다. ‘직업 수행’이 최고의 정신적 문화가치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질 수 없는 경우 (……) 현대인들은 대개 직업 수행이 지니는 의미의 해석을 완전히 포기한다.”³⁾

베버는 20세기 현대인들에게는 17세기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주의”와 “직업의무”가 결여되어있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인들은 노동의 의미와 재화의 축적이 17세기 프로테스탄트들과 같이 개인의 궁극적 목표인 ‘소명달성’의 수단이라는 행위라는 것에서 벗어나 재화축적이 현대인들의 궁극적 목표 그 자체로 전락해 버렸다고 한다. 즉, 신의 은총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 자체가 신이 되어 버린 것⁴⁾이다. 베버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 즉 “외적 재화”에 의해 지배당하는 현대인들을 “정신 없는 전문인”, “가슴 없는 향락인”, 그리고 “무가치한 인간”⁵⁾이라고 비판한다.

영혼 없는 한국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사회도 ‘돈’이라는 강력한 신이 군림하는 사회이다. 노동을 ‘구원’이라는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17세기 칼뱅주의 프로테스탄트들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현대인들에게는 돈을 버는 것이 구원 그 자체이자 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로 깊게 자리 잡았다. 도서관에만 들어가 봐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삶의 목표인 한국인들의 기계적인 삶을 실감 할 수 있다. 특히 대학 도서관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무엇을 공부하고 있나 결눈질해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TOEIC, TOEFL, TEPS 등 영어공인인증시험, 공무원시험, 각종 자격증 시험 등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하지만 그들의 책상 앞엔 에너지 드링크 같은 피로억제제가 놓여있고 그들은 자격증을 따고

3) 막스 베버, 앞의 책, 365~366쪽.

4) 노명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노동의 이유를 묻다』, 사계절, 2008, 189쪽.

5) 막스 베버, 앞의 책, 367쪽.

싶어 열정적인 자세가 아닌 무기력한 태도로 공부에 임한다. 그들이 도서관에서 하는 이러한 공부들은 청년 실업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스펙”⁶⁾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개인을 더 돋보이게 하여 남들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행위이다.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겐 그들이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사람들은 그저 그들에게 많은 월급을 제공 해 줄 수 있는 회사에 ‘취업’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 목표인 것이다.

한국사회가 돈을 중시하는 사회로 치닫고 있는 사실은 요즘 한국 대학교들 사이 유행하고 있는 인문학 학과 통폐합 현상에서 잘 나타난다. 경남대학교는 학생 수가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철학과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⁷⁾ 중앙대학교는 아시아문화학부 비교민속학전공,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전공·청소년전공·가족복지전공 등 타 학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4학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각 학과의 정원도 줄이겠다고 했다. 중앙대학교는 경영학부, 경제학부 등 경쟁력이 치열한 인기 많은 학과들의 정원을 늘린다고 했다.⁸⁾ 심지어 배재대학교는 “국어국문학과와 외국인 한글 교육학과인 한국어과를 ‘한국어 문학과’로 통폐합”하며 국문학과를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⁹⁾ 한국에서 ‘경쟁력’있는 학과란 미래에 취업하기 더 수월한 학과를 말한다. 경영학과, 경제학과 등 이런 경제적 전망이 좋은 학과들은 취업하기에 더 유리하며 취업 후 ‘돈벌이’가 잘 되는 학과들이다. 반면에 국문학과, 철학과, 사회복지학과, 역사학과 등 인문계열학과 등은 돈벌이 수단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학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천시되고 대학교들은 이런 경쟁력 낮은 학과들을 폐지하기에 이른다. 이런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등을 장려하고 경쟁력 없는 인문계열학과들을 폐지하는 사회적 현상은 “누구든지 자신의 생활양식을 자본주의적 성공 조건에 적응시키지 못하는 자는 몰락하거나 아니면 변형할 수 없다.”¹⁰⁾라고 20세기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한 베버의 말을 연상시킨다.

‘돈’만을 추구하고 자본주의 정신이 결여된 영혼 없는 한국 자본주의 사회는 2014년 “세월호 침몰사건”¹¹⁾을 계기로 절정에 달했다. 세월호는 이미 낡은 선박이었다. 세월호는 이미 18년간 일본에서 항해를 한 선박이었고 청해진 해운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선박수명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을 때 세월호를 사들였다. 세월호는 선박 자체가 낡은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청해진 해운은 한 항해에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손님을 더 많이 태울 수 있게 객실을 늘렸고 화물적재량을 3배 이상 초과했다. 과적한 화물들을 흔들리지 않게

6) ‘스펙’은 이력서에 개인이 이룩한 ‘업적’이나 ‘능력’을 기재할 때 사용하는 신조어로 컴퓨터의 사양(仕様)에 대해 논할 때의 영어식 표현인 Specification에서 유래했다.

7) 임채민, “경남대 철학과 폐지 반대운동 본격화”, <경남도민일보>, 2013년 6월 7일,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727>>, (2014. 6. 9).

8) “[쟁점토론]대학 인문학과 통폐합, 전공 선택 낮은 학과 구조조정 vs 경쟁력이 학문의 기준 아냐”, <이투데이> 2013년 6월 21일,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51173>>, (2014. 6. 9).

9) “배재대 국문과 폐지 논란… ”경쟁력 강화 위해 학과 개편”, <경인일보>, 2013년 5월 10일,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862>>, (2014. 6. 9).

10) 막스 베버, 앞의 책, 95쪽.

11) 2014년 4월 16일 ‘세월호’라는 제주도행 여객선이 진도군 해안에서 침몰한 사건으로 총 탑승자 476명 중 29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실종한 사건이다.

고정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청해진해운은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화물들을 고정하지 않았다. 너무 많은 화물과 승객을 실은 세월호는 결국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침몰했고 총 탑승자 476명 중 291명이 사망한 비극으로 결말이 났다. 또한, 청해진해운은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청해진해운이 2013년 안전교육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고작 541,000원으로 1인당 4,000원 꼴이다. 반면에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광고비용으로는 2억 3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청해진해운의 자본에 대한 탐욕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세월호에 탑승해 사망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2명은 정직원이기 때문에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청해진해운 뿐만 아니라 돈이라는 신만 추앙하는 대한민국 자본주의사회의 패덕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세월호 사망자들의 유가족이 사망자의 휴대폰을 해지하려고 이동통신사를 찾아갔을 때, 이동통신사들은 유가족들을 위로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해약금을 내라고 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대한민국 자본주의사회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치보다 돈이라는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사회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대한민국은 영혼 없이 돌아가는 사회라는 것이다. 사실 세월호 탑승객들은 전원 구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탑승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직업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망각하고 탑승객들에게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방송을 한 뒤 해경이 오자마자 가장먼저 탈출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에게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으로서의 소명의식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에게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돈’을 벌기위해 그들이 일해야만 하는 일종의 수단 그 뿐인 것이다. 세월호 선장의 병실에 기자들이 들이닥쳤을 때, 물에 젖은 5만원권 지폐를 말리고 있었다고 한다. 죽음의 늪에서 간신히 살아나와 자신의 돈이 말짱한지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세, 이는 한국사회가 생명보다 돈을 더 추구하는 물질만능주의에 철저히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만이 그들의 직업소명의식을 망각한 것만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만 하는 직업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자 구조작업에 대한 진전을 커녕 국민들이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자 청와대 문을 걸어 잠그고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국민들을 공권력을 사용해 진압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대통령은 해경이 구조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해경에게 전가해 해경을 해체하기에 이른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회장도 세월호 사건이 터진 후 정부가 책임을 묻자 도주해 버렸다. 선장과 선원들, 청해진해운의 회장, 해경, 심지어 대통령까지 아무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하지 않았다. 모두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나 윤리의식은 저 깊은 심연으로 던져버렸다.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에 대한 대가를 물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책임에 대한 대가는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손해란 바로 ‘돈’과 결부지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자본주의는 직업소명의식이라는 목적의식을 망각한 채 ‘돈’이라는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영혼 없이 표류한다. 어떤 사회이든 목적의식 없이 진전하는 사회는 몰락하고 만다. 세월호는 “한국자본주의호”이며 세월호 침몰사건은 영혼 없이 표류하는 “한국자본주의호”의 침몰이다.

맺음말

프로테스탄티즘의 시초인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그가 번역한 성경에서 직업을 독일어로 “Beruf”라고 번역했다. Beruf는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시작되기 전 가톨릭 세계와는 다른 개념의 ‘직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calling(소명)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다.¹²⁾ Beruf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자면 신이 부여하신 직업 즉, “천직”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17세기 프로테스탄트들은 신이 개인에게 부여한 직업을 가지고 신념을 다해 ‘노동’해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인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17세기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천직”이란 말 그대로 ‘신이 부여한 직업’이었지만 21세기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흐려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천직”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오늘날의 “천직”이란 개인이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를 진정 좋아하고 그 직업에 대해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노동할 수 있으며 노동을 함과 동시에 기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 한 개인의 “천직”이라고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한 개인이 자신이 선택한 직업의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정말 기쁨과 행복감을 느낄 때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의 노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영혼의 평화와 안정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때, 비로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책임감, 윤리의식 등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천직’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 ‘돈’이라는 거짓된 신의 부르심에 이끌려 자기가 원하지 않은 TOEFL, TOEIC, 공무원시험 등을 공부하면서 이리 저리 표류하고 있다. 그렇게 공부해 ‘돈’ 많이 주는 직장에 취업한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해 어떠한 종류의 노동을 하던 ‘돈’이라는 목적만 달성하면 끝인 것이다. 자신의 직업을 통해 노동을 함으로서 자신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로부터 직업소명의식, 윤리의식, 책임감, 사명감 같은 정신이 발달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21세기 한국 자본주의사회에는 현대자본주의에 걸맞은 새롭고 성숙한 자본주의정신이 무척이나 필요하다.

12) 막스 베버, 앞의 책, 121쪽 참조.

참고 문헌

- 김태훈, “[차 한잔 나누며] 인문학 살리기 앞장 선 오세영 서울대 국문과 명예교수”, <세계일보>, 2013년 7월 5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6/21/20130621004656.html>>, (2014. 6. 9).
- 노명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노동의 이유를 묻다』, 사계절, 2008.
- “배재대 국문과 폐지 논란… "경쟁력 강화 위해 학과 개편”, <경인일보>, 2013년 5월 10일,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862>>, (2014. 6. 9).
- 백남주, “[침몰하는 대한민국] ③ 사람보다 돈을 중시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맨 얼굴”, <진실의 길>, 2014년 5월 7일,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338&table=byple_news>, (2014. 6. 9).
- 임채민, “경남대 철학과 폐지 반대운동 본격화”, <경남도민일보>, 2013년 6월 7일,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727>>, (2014. 6. 9).
- “[쟁점토론]대학 인문학과 통폐합, 전공 선택 낮은 학과 구조조정 vs 경쟁력이 학문의 기준 아냐”, <이투데이> 2013년 6월 21일,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51173>>, (2014. 6. 9).
- 막스 베버, 김덕영 옮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도서출판 길, 2010.